

속도 내는 '호남통합신당'

대안신당 최경환·평화당 정동영 대표 "신속한 행보 필요"

보조금 지급 시점인 다음주 마무리 가능성... 지분 등은 난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지난 6일 통합 추진 선언에 6일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이 일제히 호응하며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둔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들이 본격적인 통합 수순에 들어섰다.

호남에서의 여론 지지세를 극복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감이 정당 보조금 지급 시점이 15일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통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통합수행기구를 확정해 3당 협상을 시작하자"면서 "대안신당은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3당 통합선언에 나서겠다. 다음주까지 3당 통합선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 협상대표인 박주선 의원과 회동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잘못된 분열을 넘어 다시 통합이 이야기되고 있다.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며 "통합당이 어떤 명분과 가치가 있는 지 알리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평화당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다음 주 토요일인 15일로, 실무적으로 14일까지는 통합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곧바로 통합추진기구를 세우고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성엽 위원장과 만나 이르면 다음 주 초 통합을 이루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통합의 방식에 대해 "시설 합당이 이상적이나 제3지대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자면 선관위 심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고 시도당 개편대회 등도 필요해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당명을 바꿔 대안신당과 평화당이 합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 및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마냥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미지수다.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으로 쪼개지고, 평화당 일부 의원이 다시 탈당해 대안신당을 세우는 등 분열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상호 신뢰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즉,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도부 구성과 신당의 지분 문제 등 주도권을 놓고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3당 통합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자신이 교류하고 있는 정

년-미래세대 그룹의 합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개혁 세력까지 선거 연대를 이루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통합 세력 일각에서는 대표급 인사들이 2선으로 후퇴하고, 보다 젊은 인사를 신당의 간판으로 내세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 및 신당 창당 없이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공멸을 부를 수 있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서 지분 다툼 등 이전투구보다는 적절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3지대 신당 창당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특히, 통합 신당에 미래 세력이 함께 한다면 호남은 물론 4월 총선판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⑧ 총선 라운지

김성진·박시중 민주 광산을 예비후보 단일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진·박시중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단일화 한다.

6일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측근비리 등 술한 의혹으로 얼룩진 토호 정치로는 이 시대의 과제인 정치혁신, 검찰개혁, 야당심판 등에 당당히 나설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통 큰 결단은 광주의 정치, 광산의 정치혁신에 큰 획을 긋는 것은 물론 정치·경제의 전문가가 함께 더 나은 광주, 더 큰 광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하고 참신한 새 인물을 바라는 지역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며 "측근비리 등 술한 의혹으로 얼룩진 토호 정치로는 이 시대의 과제인 정치혁신, 검찰개혁, 야당심판 등에 당당히 나설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박시중

이들은 또 "경제전문가 김성진 예비후보, 국정경험이 풍부한 박시중 예비후보가 두 손을 꼭 잡은 단일화로 지역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일화를 통한 지역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의지를 밝혔다.

현재 단일화 협상 실무기구를 만들어 단일화 시기,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들어갔으며 단일화 전 과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조오섭, 광주 시민·선거캠프에 헌혈 동참 호소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혈액부족이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고 선거캠프 특보단, 자원봉사자, 지지자 등이 선제적으로 헌혈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광주지역 혈액 보유량이 위기단계인 만큼 이번 총선에 출마한 모든 선거캠프와 광주시민의 헌혈 동참을 호소했다.



조 예비후보는 "혈액보유량은 상시적으로 평균 5일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3일 미만일 경우 주의단계, 2일 미만일 경우는 위기단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공감한 선거캠프 특보단과 자원봉사자,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이인영 "한국당, 신종 코로나 대처 초당적 협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정봉주 적격 여부 판정 연기

공관위 "헌역 평가 하위 20% 검토 사안 많아 9일 결정"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4·15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 판정을 연기했다.

또 공관위는 이날 10~20%로 정해져 있는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청년, 여성, 중증장애인 등 경쟁하는 정치신인이나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 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출신 정치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그 밖의 정치신인은 2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전체회의 후 정 전 의원 적격 여부 판정과 관련해 "오늘 결론을 못 내리고 오

는 9일 오전 8시 30분 공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 전 의원) 관련 재판이 성추행과 연관된 파생적 사건의 명예훼손, 무고 재판인데 판결문을 보면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놓은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이 좀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헌역의 의견은 과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그 부분을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 이미 국민적 인식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쪽으로 형성된 것 아닌가, 그런 정무직 판단이 필

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기에 '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루'(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을 당시 정 전 의원이 내용을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꿔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것처럼 됐으니 '부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에 거치지 않고 바로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했기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데에는 공관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헌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관련 심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검토할 사안이 많아 9일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제 전문가

홍성국·이재영 영입

더불어민주당은 6일 4·15 총선을 앞두고 홍성국(57)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과 이재영(55)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영입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17·18번째 영입 인사로, 각각 실물-거시경제(홍성국)와 국제문제-대외경제(이재영)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 전문가'다.

이 전 원장은 경남 양산갑 출마로 가다가 잡혔고, 홍 전 사장은 수도권 또는 충남 지역 출마가 검토되고 있다.

홍 전 사장은 증권사 평사원에서 시작해 사장까지 오르며 '월급쟁이 신화'로도 불린다. 이 전 원장은 유라시아지역 경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결론 못낸 한국당 새 당명

자유한국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당명(黨名)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전환 후보본부장이 의총에서 당명 후보군을 보고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의 시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다. 국민의 최종 관심은 '나의 행복'이라며 당명에 '행복'을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들도 이에 전체적으로 공감했다고 김전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여기에 더해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 가치"라며 '자유'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 "미래세대를 위하여"는 취지에서 '미래'를 넣자는

의견, '혁신'을 강조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의총에서 나온 의견들은 이날 출범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보수통합'이 성사돼 새 당명을 만들 경우에 대비한 한국당의 제안인 셈이다.

신당 이름 자체를 '통합신당'으로 하자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을 상징하는 색은 현재의 빨간색을 유지하되, 채도를 조금 바꾸는 등 '약간의 변용'이 있을 것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자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임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로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무료공개 강의 실시 ●
- 조선대: 3월 6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의 봄.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2월 28일
- 교육기간: 2020년 3월 5일~2020년 6월 11일
매주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 수 강 료: 22만원(3개월)
-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 H. 010-9416-1200, T. 062)230-7700-2